



인류를 살리는 삶의 철학 '채식'



베지테리안, 세상을 들다
뜨루다 시즈카 지음 | 손성에 옮김
모색 펴냄 | 1만1천원

임태한 입맛이 죽으면서 수많은 자손까지 함께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알을 뺀 채 잡혀 식탁위에 오른 물고기다. '웬 수수께끼'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평생 베지테리안(Vegetarian)으로 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궁정 호위병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낸 문제다. 베지테리안? 흔히 '채식주의자'라고 쉽게 번역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베지테리안'이란 단어의 어원은 뜻밖에도 채소를 말하는 베지터블(vegetable)이 아니라 '~에게 생명을 주다' 또는 '활기차게 ~하다'는 라틴어 'vegetus'이다. 1842년 이 단어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원래의 뜻은 '건강하고 생기 넘치며 힘센 사람'이었다.

그래서 베지테리안에 담긴 본래 의미는 인간의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등·식물에 대한 사랑,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의 평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좀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채식주의자란 말 대신 굳이 '베지테리안'이란 원어를 책 속

부조리·불평등의 기원 육식위주 식습관에서 찾아 베지테리안의 본래 의미는 '~에게 생명을 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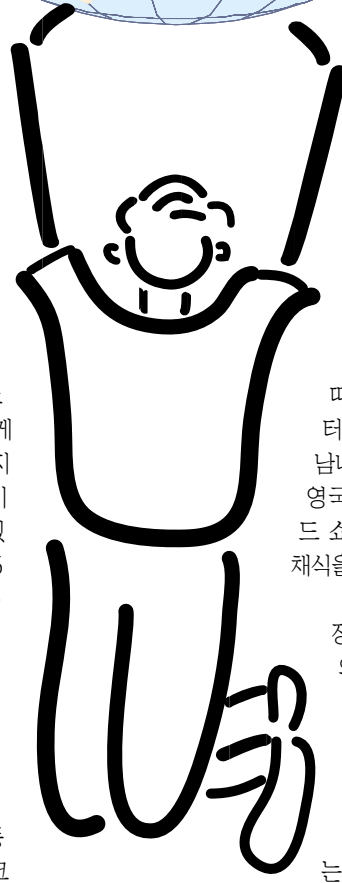
에서 고집하고 있다. 저자의 해석대로 베지테리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 육식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현대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원시사회에서 사냥으로 고기를 얻은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남녀 불평등은 출발했다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이 먹을 고기를 얻기 위해 10여명의 식량을 사료로 사용하는 사이에 지구 저편에서는 수만명이 굶어죽는 가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채식주의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저자는 "1파운드

철학·수학·문학·음악 등에서 세계를 움직인 위인들 중 '베지테리안'들이 많다. 사진 맨 위 좌로부터 헨리데이비드 소로, 피타고라스, 플라톤, 존레논, 루소, 톨스토이, 애니베전트, 칸디, 바그너.

(450g)의 식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에게 16파운드, 돼지에게 6파운드, 닭에게 3파운드의 콩과 곡식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1에이커의 땅에 곡식을 재배하면 고기 양의 5배나 되는 단백질을 산출할 수 있으며, 콩류를 재배하면 10배, 야채는 15배, 시금치는 무려 쇠고기의 26배나 되는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며 채식이 육식에 비해 더 나은 영양분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자칫 뻔한 수치와 이론만으로 책을 끝마친다면 채식에 대한 설득력이 식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육식의 시대에도 베지테리안으로 살다 간 22인을 등장시킨다. 피타고라스, 톨스토이, 장자크 루소, 헨리 데이비드 소로, 칸디, 히틀러 등 역사 속 인물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채식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나도 한번 채식주의자가 되어 볼까' 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

피타고라스는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한 뒤 신에게 100마리의 소 대신에 밀가루와 꿀을 섞어 소의 형상을 빚은 케이크를 바쳤다. 톨스토이는 고기를 가리켜 '시체'라고 불렀을 정도로 59세부터 육식을 철저히 포기했다. 마하트마 간디도 힌두교의 계율에



따라 때어날 때부터 채식을 했으며, 남녀 평등을 주장한 영국의 문학가 버나드 쇼도 25살 때부터 채식을 했다.

인류역사에서 가장 열렬한 채식주의자이자 동물애호가를 꼽는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저자는 아돌프 히틀러를 지목한다. 히틀러는 술과 담배를 즐기지 않았고, 만찬을 베풀 때 손님들에게 육류를 내놓더라도 자신은 그것들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다소 비약된 논리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소개되는 위인들이 채식주의를 통해 삶과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무턱대고 맛있는 음식만 찾아 게걸스럽게 먹기 보다는 음식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갖고 올바른 식사가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하게 만드는게 바로 이 책의 강점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현의 노래
김훈 지음 | 생각의 나무 펴냄 | 9천5백원



<칼의 노래>로 '한국 문학에 버락처럼 쏟아진 축복'이라는 찬사를 받은 작가 김훈의 신작 장편으로 가야금의 예인(藝人) 우륵과 그의 시대를 그린 소설이다. 작가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우륵의 생애를 역사적 상상력의 극한으로 밀어붙여 소설화시켰다. 악곡을 짓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바꾸어 음악을 연주한 가인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그 시대가 가야금 줄을 찢기듯 한껏 긴장되고도 울림이 큰 언어로 다가온다.

가야금 가실왕의 명에 의해 우륵은 가야고를 위한 악곡 12곡을 짓는다. 그 중 9곡은 가실왕의 뜻에 따라 그 지방의 독특한 정서가 드러나도록 만든 곡. 그러나 대가야는 망하고 우륵은 다시 신라에 몸을 맡기게 된다. 신라 진흥왕은 지금의 충주에 특별히 거처를 마련해주고 세 사람을 보내 우륵의 음악을 전수케 한다는 이 간략한 역사적 줄거리에 의해 이야기는 시작된다. 작가는 품

파란만장한 우륵의 삶과 욕망

곶한 사료조사와 역사적 상상력을 보태 왕과 장수, 대장장이와 궁녀, 관리와 범부 등을 불러내어 기원전 500년의 세간의 욕망을 그려냈다.

특히 이 책은 군인과 예술가를 대조시킨다. 야로는 군인으로서의 길을 가고, 담정은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는다. 우륵은 비겁하더라도 우선 목숨을 부지하려 한다. 망명인으로서 적국에 들어가 마음을 감추며 가야와 신라를 떠돈다. 우륵은 현을 통해 삶을 배웠다.

가야금 소리에 높아짐과 낮아짐이 있고, 울림과 잦아짐이 있듯이 인생도 그러한 것이라곤 걸 우륵은 깨달았다. 살아있는 소리라야지, 울림이 끝난 소리는 의미가 없음을 알기에 우륵은 가야금만 타며 평생을 살아가고.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시대를 살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화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담정이나 우륵처럼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혀 몇 일씩 책장을 넘기지 못할 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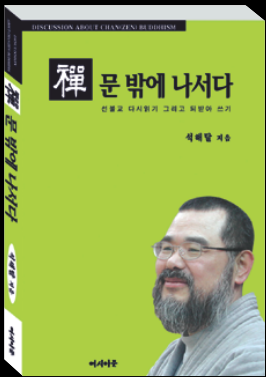
이 책은 지금까지 보아오던 김훈의 문체와는 사뭇 다른 빛깔과 풍성한 맛이 배어있어서 인지 책을 덮은 뒤의 여운이 다른 강하다.

■정복고(영서대 국문과 강사)

티베트		佛敎 성지순례	
패키지 상품 하를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베트 8일 ▶ 5/21.6/18.7/16.7/20.7/27.7/30 ▶ 189만원 티베트/네팔 문화탐방 11일 ▶ 5/27.6/3.6/17.7/15 ▶ 260만원		단체 배낭 상품 하를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베트 8일 ▶ 5/21.6/18.7/16.7/20.7/27.7/30 ▶ 143만원 환상의 우정공로를 횡단하는 티베트/네팔 12일 ▶ 5/21.6/18.7/23.7/30 ▶ 173만원 티베트/네팔/인도 23일 ▶ 6/20.7/4.7/29 ▶ 239만원	
티베트 전문 해조여행사(주) (02)733-3900 / www.hyecho.com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이 「선, 문밖에서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패치워크)처럼...

- 본문 중에서

신국판 / 456면 / 14,000원 / 석해탈 저 / 여시아문

「금강경」해설의 3대 법사는 해안 스님, 백성욱 박사, 석해탈 스님. 이 세 분이 곱힌다. - 현대불교신문 2544년 6월 21일자 275호 지목 스님의 글에서 -

禪

문밖에서 나서다

